

향가정신 계승과 짧은 시의 형식미 고찰

- <작은詩앗·채송화>를 중심으로

박혜숙*

논문철회

RETRACTED

연구윤리 위반 및

연구부정행위 논문

논문철회

- 차례 -

RETRACTED

1. 서론

2. 향가정신 계승과 '짧은 시'의 양식적 특징

3. <작은詩앗·채송화>의 시론

4. <작은詩앗·채송화>에 나타난 미적 구조

5. 결론

연구윤리 위반 및

연구부정행위 논문

[국문 초록]

향가 양식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고는 현대시의 원천을 향가에서 찾는다. 향가는 고려가요와 시조 등 중세 서정시의 형성에 기여하였으며 현대시에도 영향을 준다. 시의 본질은 서정성에 있다고 보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시심을 펼치는 <작은詩앗·채송화(이하 '채송화')> 동인이 있다. <채송화> 동인은 2007년에 '미래파' 경향의 난해시에 대한 대타(對他)의식으로 결성되었다. 시

* 상명대학교 강사. wing289@hanmail.net

론과 작품들을 통해 ‘짧은 시’를 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짧은 시’는 단순히 ‘긴 시’의 거부와 극복이라는 시대의 시적 소임만이 아니라 시의 본령인 ‘서정(抒情)’을 회복하고 현현하는 것이다.

한 행에 오는 음보 수에서 자유로움을 추구하되, 행의 수를 10행 이하로 하면서 <채송화> 동인은 짧은 시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대개 한 두 행 가량을 의미전달의 용이성에 따라 가감하면서 배열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향가의 형식에서 동떨어진 것이 아니며, 정서적인 고전미가 반영되어 있다. 향가의 4구체, 8구체, 10구체에 따른 미적 구조는 문제를 부각하기 위한 방법론이며 <채송화> 동인의 형식미로 향가 정신을 충분히 계승할 수 있다. 예컨대 2행 6음보나 3단 구성, 3단의 시상 전체를 찾아보면 여러 작품이 상통한다.

짧은 시의 구조에 있어 미학적 의미를 고찰한 결과, 압축미가 있고 여백이 불러오는 풍경이 있으며 자연과 교감하는 서정성이 있다. 향가의 특질과 견주어봄으로써 오랜 세월이 거저 온 한국적 서정성의 생명력을 새삼 느끼게 된다. 향가는 천여 년 전에 사라져 버린 중세 문학 양식이지만 그 정신은 오늘날에도 살아 있는 고전으로 향유될 수 있다.

주제어: 향가정신, 현대시의 구성, 짧은 시, 자연 서정·채송화 동인, 형식미, 서정성, 여백

1. 서론

한국현대시가 어려워지고 산문화되는 경향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본고는 출발한다. 복잡한 세태를 반영하며 시의 문법이 중층적일 때, 발생할 수 있는 이 현상을 무조건 경계하는 것이 아니다. 지나치게 주관적인 사고에 매몰되어 시 장르가 지니는 기본적인 합의를 어기는 경우를 지적

한다. 독자가 알지 못하게 개인화, 암호화된 시와 지나치게 의미부여되고 길어진 시를 극복하고 이 글의 궁극은 시의 본령을 찾는 데 있다.

시를 읽을 때는 시어의 흐름과 시행의 깊이를 짚어보게 된다. 한 편의 시를 읽는 것은 해석되기 이전의 이쪽 강안(江岸)에서 시의 강을 지나 해석의 맞은편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도달한 곳은 곧 의미의 세계라고 하겠다. 이렇게 시는 감추어진 시어들을 찾아 의미의 징검다리를 연결했을 때 감상의 묘미가 있다. 하지만 현재 시의 보편적 질서를 도외시하고 난삽하거나 강행하다 문학이 개성의 발현이면서 동시에 보편의 구현이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리를 숙지하지 않은 소치이다. 문학은 세상과의 갈등이나 단결에 그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든 소통을 시도하는 것임을 상기해야 한다.

한국시의 본령을 찾다 보면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향가를 만나게 된다. 본고는 향가 양식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시의 원천을 향가에서 찾는다. 향가는 고려가요와 시조 등 중세 서정시의 형성에 기여하였으며 현대시에도 영향을 준 자취가 있다. 마침 오늘날, 전통 향가를 계승하고 현대적으로 재현하는 <현대향가> 동인이 있다. 또한 시의 본령은 서정성에 있다고 보는 이들과 더불어 향가 이해 시점을 펼치는 <작은詩안·채송화(이하 ‘채송화’) 동인도 있다. 본고의 목표는 향가 장르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향가정신이 오늘날의 현대시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맥락의 관점에서 밝히는 데 있다.

기존의 향가론 중에서 향가의 양식적 특질을 전면적으로 설명한 견해를 바탕으로 현대시에서 향가의 흔적을 찾아보고자 하며 이러한 견해 중에 현대시와 향가와 관련지은 선행연구¹⁾도 검토를 해 보았다. 본고의 진

1) 조병기, 『한국문학의 서정성 연구』, 대왕사, 1993, 58-62면.
 엄국현, 「향가의 개념과 한국시의 구조」, 『신라학연구』3, 위덕대 신라학연구소, 1999, 350-377면.
 김종진, 「균여가 가리키는 달-보현십원가의 비평적 해석」, 『정토학연구』19, 2013, 112-119면.

전승된 향가를 통해 우리는 미학적이며 서정적인 감동을 얻고 있다. 문학 작품에 감화되는 것은 보편성과 개성을 아우르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학적 향구성은 어느 시대이든 전해지면 그 시대의 것이 되고 생명력을 지닌다. 최철은 향가의 성격에 대해 “향가라는 말 속에는 우리나라라는 것을 강조한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의지가 있다. 『균여전』의 기록에 당시(唐詩)가 당나라 말로 짜였듯이 향가는 향어(鄉語)로 쓰였다”⁷⁾면서 우리나라의 독자적 문학의 이상을 강조한다.

조동일은 향가의 의미에 대해 “향가는 노래 지체로서의 의미만을 갖고 있지 않고 배경이야기를 보충(補足)하여 완성하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시의 문학적 측면만 강조하지 않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선명성에도 중점을 두었다면서 향가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재창조된 방식, 인생살이의 곡절, 정치적 질서의 허실 등 세 부류로 나누었다.”⁸⁾ 또한 향가는 종교사상에 영감을 받고 불교적 의식이 나타난다. 즉술적이고 제의적인 면에서 파악이 가능하다. 전통향가에서 ‘주술로서의 시명’과 ‘통치로서의 치리’가 과거에 그치지 않고 계승하여 현대향가로 재현이 되면 물질 위주의 시대에 원리나 이치를 따르게 되니 정신이 허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현대시를 짧게 쓰거나 축약하면 향가의 형식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4구체, 8구체, 10구체의 짧은 시 운동은 서정시가 갖는 장르적 특성인 동일화의 원리와 더불어 순간성과 압축성에 부합한다. 시적 긴장을 지닌 짧은 시는 독자에게 전달하기에도 수월하다. 짧은 시의 형식이 갖는 공간구조의 특성은 장시나 산문시가 성취하지 못하는 면으로 일목요연하다. 구성상의 장점을 살려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은 독자와 소통의 문을 넓혀 줄 것이다. 현대시와 전통향가를 원활하게 소통시키는

7) 최철, 『향가의 문학적 해석』, 연세대출판부, 1990, 5면.

8) 조동일, 『한국시가의 역사적 의미』, 집문당, 1993, 63면.

방법은 멀리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별개로 볼 것이 아니라 통하는 점을 찾아야 한다. 일본의 하이쿠가 세계적인 장르가 된 데는 짧으면서도 촌철살인의 매력이 있듯이 향가는 짧고 주술성이 있어서 쓰거나 외우기에 적합하다.

생활 속에서 짧은 시 운동이나 향가 운동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시문학을 어렵게 생각하는 일반인을 시의 곁으로 오게 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14행의 전통 시의 소박함보다 짧아 노래화하기도 쉬운 장점을 지녔다. 오늘의 현대시, 한혹형과 여운의 묘미로 독자에게 다가가야 한다. 전통을 아우르며 심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다. 현대시의 단해라고 산문화되는 행보를 강제로 묶을 수는 없지만, 짧은 시를 엄두가 두면서 불필요하게 길어져도 간접해지는 현대시의 병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이제부터 시 본연의 담백한 구조를 추구하는 <채송화> 동인의 이론과 작품 세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3. <작은시안·채송화>의 시론

연구부정행위 논문
시는 서정적 예술 양식에 속하는 대표적인 문학 장르이다. 서정은 인간과 세계가 화해하고 합일하는 상태이다. 시 속 주체가 세계와 화해하거나 합일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이다. 자기를 세계에 투사(投射, projection)하거나 세계를 자기와 동화(同化, assimilation)시키는 것이다.⁹⁾ 시를 통해 자연과 합일하고 타인과 연결되며 삶을 영위한다. 불안하고 고독할 때 본질을 질문하고 삶을 통찰하며 형상화하는 과정이 시이다. 김길녀 시인이 『작은시안·채송화』 17호 「여는 글」에서 소개한 라이너 쿤체(Reiner Kunze)의 시가 시론을 뒷받침한다.

9) 김준오, 『시론』(제4판), 삼지원, 1997, 34-42면 참조.

들어오세요, 벗어 놓으세요 당신의

슬픔을. 여기서는

침묵하셔도 좋습니다

- 라이너 쿤체, 「한잔 재스민차에의 초대」 전문

김길녀 시인은 위의 시를 “오래전 구 동독 시절, 체제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문에 붙어 놓고 위안으로 쓴 것”이라고 소개한다. 체제의 위협과 공포 속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슬픔을 벗어 놓으라며, 침묵해도 좋으며 위로하는 메시지는 감동적이다. “당신”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당신”의 슬픔을 안다며 “당신”을 위한 위안과 슬픔을 준다. 이렇듯 좋은 시는 독자로 하여금 “그림에도 불구하고 말이어 하는 의지와 삶에 대한 사랑을 느끼게 한다. 이것이 바로 서정이 갖는 힘이며 서정이 필요한 까닭이다.

그러나 서정의 본질에 대한 시인의 사유가 부실한 시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 장황하고 난해하며 외화내빈의 시들이 넘쳐난다. 이 시점에 <채송화> 동인이 결성되었다. 경위와 내용을 살펴보면 2007년 <시와 시학>에서 나타난 ‘시문학’에서 윤호 시인과 정일근 시인이 만났다. 우리 시의 산문화·사설화에 대해 각성하며 ‘짧은 시’를 쓰는 동인을 결성하기로 하였다. 전국에서 동인이 모여 <작은詩앗·채송화>(이하 채송화)가 결성되었다. 결성 당시 동인은 나기철, 복효근, 오인태, 윤호, 이지엽, 정일근, 함순례 등이었다.

이듬해 2008년 3월 동인지 『작은詩앗·채송화』를 창간했다. 2009년 10월 동인지 5호를 발행하고 김길녀, 나혜경 시인이 합류했다. 2018년 10월 동인지 20호를 낸 뒤에 정일근 시인이 빠지고 오성일 시인이 합류했으며

10) 김길녀, 「여는 글-미니멀리즘과 짧은 시의 관계미학」, 『빈틈엔 꽃』(『작은詩앗 채송화』 17호), 고요아침, 2017. 5. 6-7면, 현순영, 「서정을 지키는 시 정신」, 『맞는 말』(『작은詩앗·채송화』 21호), 고요아침, 2019. 6. 119-120면 재인용.

2019년 6월, 동인지 21호가 발간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동인들이 중간에 바뀌기도 해서 본고에서는 최근 21호에 실린 작품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채송화>는 시의 산문화, 사설화 경향을 지양하고 극복하려는 의도로 결집한 만큼 처음에는 ‘긴 시’의 안티로 ‘짧은 시’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그들은 ‘짧은 시’를 지속적으로 쓰며 담론을 정립하였다. 말을 함부로 허비하는 시, 산문화된 시, 번거로운 시, 어려운 시를 ‘긴 시’로 규정한다. 그리고 그러한 시들을 시의 결과 경향을 흐리게 하며, 독자에게 와 닿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긴 시’에 대한 <채송화>의 문제의식은 동인지 창간호에 윤호 시인이 쓴 「창간사」에 나타날 수 있다.

윤호 시인은 “우리가 갈수록 수다스러워지고”, “말공과 함축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으며 “그 수다스러움 속에서 시의 위익은 물론 생기마저 시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채송화>는 창간호부터 시의 길이를 10행 이내로 한정했다. 이는 10행 향가의 양식적 특질을 통한다. 향가의 구성 즉 3단의 변증법적 의미구조나 시상 전개 방식에 상관성이 있다.

의미론적으로 봤을 때 단순히 부량이 적다고 해서 ‘짧은 시’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오인태 시인을 통해 시 52인 19호의 「여는 글」에 대해 같이 썼다.

시가 시다워지는, 곧 시가 되는 원리, 혹은 시의 속성은 ‘동일성’, ‘현재성’, ‘집중성’에 있다. 시는 시적자아가 세계와 만나고, 그 물아일체의 순간에 태어나기 때문이다. 시가 본질적으로 짧은, 짧아야 할 까닭이 여기에 있다.¹²⁾

11) 윤호, 「창간사-〈작은詩앗·채송화〉를 펴내며」, 『내 안에 움튼 연둣빛』(동인지 창간호), 2008. 3.

12) 오인태, 「여는 글-짧게 쓴 시, 짧은 시」, 『하늘 우물』(동인지 3호), 고요아침, 2008. 12. 4면.

시가 수다스러워지고 있다는 말은 단지 시의 길이가 길어진 것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시와 산문의 본질적인 차이는 시적자아와 대상 간의 심리적 거리에서 발생한다. 시는 그 거리가 가깝고, 산문은 멀다. 그래서 시는 대상을 자아화하고 산문은 대상을 타자화하기 마련이다. 그러다보니 산문은 대상을 멀찍이 둔 채 헤집고, 견주고, 따지고 설명한다. 따라서 말이 길어지고 느슨해진다.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시가 수다스러움을 벗고 집중과 함축미를 가져야 한다. 이는 시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뜻이다. 시에서 서정성이란 자아와 대상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뜻하거나 서정성이 높다는 말은 자아와 대상 간의 거리가 그만큼 가깝다는 말이다.¹³⁾

RETRACTED

위의 예에서 오인태 시인은 서정성이 시와 산문을 구별하는 특징이며 시 장르의 본질을 짚는다. 시의 서정성은 ‘짧은 시’ 안에 시의 주체와 대상이 결합한 돌아입의 순간과 서정이 이루어지는 과정, 즉 시의 주체와 대상의 거리가 좁혀지는 구조까지 담고 있어야 한다.

오인태 시인은 ‘짧은 시’를 선문답이나 아포리즘과 대조하여 ‘짧은 시’에도 구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한다. 그는 동인지 19호의 「여는 글」에서 또 아래와 같이 언급했다.

짧은 시란 단지 길이가 짧은 것이 아니라 짧되 이런 서정시의 내적구조, 곧 시로서 완결구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단순한 영탄이나 아포리즘, 또는 밀도 끝도 없는 선문답은 우리가 지향하는 짧은 시가 못된다.¹⁴⁾

시인은 시의 구조로 시 속의 주체가 대상과 합일하는 필연성을 현현

13) 오인태, 「여는 글-때늦은 구애일 수 있으나, 다만」, 『울컥』(동인지 19호), 고요아침, 2018. 6. 4-5면.

14) 위의 글, 5-6면.

해야 하고, 독자는 이를 통해 시의 주체와 대상의 합일을 개연성 있는 것으로 인지하는 과정에서 예술적인 감각을 느낀다. 시인이 시로써 독자의 인식에 충격을 주려 할 때, 선문답이나 아포리즘을 사용한다. 그러나 선문답이나 아포리즘은 논증을 생략하거나 초월한 것이므로 서정의 진행 과정을 독자와 공유할 수 없다.

짧아도 여백이 있는 시를 <채송화>는 지향한다. 김길녀 시인은 “여백은 드러나지 않는 세계” “우주의 감각적인 무¹⁵⁾이라고 했으며 나혜경 시인은 여백이 “간헐적 하이픈 여든여섯 장의 다장¹⁶⁾”을 쓰게 한다고 했고 오인태 시인은 “가장 적은, 짧은 말로 가장 많은 말을 담아내는 시, 말을 줄이고 줄이고 마침내 그 짧은 행간에 무한한 말의 여운이 진동하는 시¹⁷⁾”라고 언급했고 함순례 시인은 “행간 너머 두근두근 심장을/저 무한량 우주의 문을”¹⁸⁾ 연다고 표현했다. 이로써 <채송화> 동인들이 여백을 중요시하는 점을 파악하게 된다.

이렇게 <채송화>가 생각하는 짧은 시에 대한 이론은 언어를 절제하고, 시의 본질인 서정을 구현하는 동시에, 독자에게 여백에서 오는 울림과 여운을 경험하게 한다.

연구부정행위 논문

4. <작은詩앗·채송화>에 나타난 미적 구조

시론에 이어 이번에는 동인지 21호에 게재된 작품¹⁹⁾들의 미적 구조를

15) 김길녀, 「여는 글-여백에서 만나는 풍요로움」, 『울음의 본적』(동인지 9호), 고요아침, 2012. 7. 5면.

16) 나혜경, 「바깥에서 온 편지」, 『옛날 애인이 찾아왔다』(동인지 8호), 고요아침, 2011. 6. 63면.

17) 오인태, 앞의 글, 4면.

18) 함순례, 「가짜시」, 『울음의 본적』(동인지 9호), 고요아침, 2012. 7. 46면.

19) <작은詩앗·채송화> 『맞는 말』, (동인지 21호), 고요아침, 2019. 6.

중심으로 서정을 되살리는 양상을 탐색해 보기로 한다. 동인들 개개인의 언어학적 특징이 나타나며 이를 향가정신의 형식미와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오지 않을 계절

오지 않을 엄마

오지 않을 옛사랑

봄 햇살 더디게 펼쳐지는

골짜기 오두막에서 하루밤

세상 가장 좋은 말은 오늘

긴 여행 티켓을 끊으며

서성거리던 눈빛

모든 신에게 충실한 두 손

날마다 새로 태어나는 사람

- 김길녀, 「병자의 일기」

함께 있을 때는 존재의 중요함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면 새삼 귀하고 절절해진다. “골짜기 오두막에서 하루

밤”도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제목에 심표까지를 포함하는 면에서 문장 부호 하나도 놓칠 수 없이 귀하다.

아래에 편성한 “병자의 일기”도 병석에 있으면 새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세상 가장 좋은 말은 오늘”인 것이며 오늘을 충실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오지 않을”이 반복됨으로써 제목과 연결되는 구조를 이룬다. 한 행을 한 연으로 처리한 시도에 눈길의 같다. 그러나 **논문철회**를 비운 구조에서 여백을 안치한 것으로 파악이 된다. 짧게 **논문철회**가 독립된 연으로 배열된 시의 형식적 특징은 행과 행의 간격을 극대화하고 여백과 행간의 의미를 풍부하게 한다. 언어적인 수법이다. 단지 하나 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시인의 관찰된 호흡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형식적 고려를 느낄 수 있다. 이런 창작 방법은 행간의 간격을 넓힘으로써 상징적인 신비감과 **연구윤리 위반 및** **논문철회**를 직설적으로 전달하는 미학적 전략의 결과물이다. 의미의 시작 구조화에 초점을 두어 분석해 보면 이 작품들은 향가 시구체 형식에서 보듯, 대체로 의미의 발전적 반복과 순환을 도모하면서 궁극에는 의미의 발전적 확장을 꾀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부정행위 논문

오늘은 어제와 다르기를 바랐지만

같은 시각 아침을 먹고 FM을 들었고

몇 사람을 만나며 주위 담지 못할 말을 또 하고

혼자 저녁 찬거리를 걱정하고 빨래를 걷고

산책하며 쓸데도 없는 잡념을 채집하고

달력을 넘기며 오지 않은 날을 체념하고

화장을 지우며 멀리 있는 나를 불러와 독대하는

무덤,덤한 하루였다

- 나혜경, 「카프카는 평범이 기적이라 했다」

밥 먹언? 잘잔? 잘 살안?
자신 없어 말꼬리를 흐리는 줄 알았다

압축한 말이 짧은 시라는 걸
귓속을 지나 마음에 닿으면
활짝 꽃 핀다는 걸

논문철회

다음 계절에야 알았다

- 나혜경, 「제주말」

RETRACTED

별다른 사건 사고가 없는 삶은 중요하지 않게 여기길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일상들이 모여 기적을 이루는 역설이 위 예시에는 있다. “무덤,덤한 하루”에서 “무덤 위에 핀 꽃”을 주목하게 된다. 위의 김길녀의 시처럼 나혜경의 시에서 역주표도 하나의 기호로써 구성을 이루는 작용을 한다.

“밥 먹언? 잘잔? 잘 살안?” 등등 제주의 말은 압축미가 있다는 것을 포착하여 지성과 인관은 짓는다. “짧은 시”는 이렇게 “귓속을 지나 마음에 닿”게 하는 묘미가 있다. 「카프카는 평범이 기적이라 했다」는 행의 끝마다 “고”가 들어가는 각운이 있다. 이러한 반복과 시상의 연쇄적 전개가 특징이며 주제표출이 맨 끝으로 수렴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새살 같은 시간에, 꽃이여!

- 오인태, 「이후」

한 줄 시가 이루는 정문일침! 어떤 사건인지 이 시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독자는 자유롭게 상상하며 읽을 수 있다. 제목이 “이후”인

것으로 보아, 상처가 되는 어떤 일이며 그 “이후” 시간이 흘러 “새살”이 돋는 극복은 아름답다. 이 시를 길게 늘여서 썼더라면 감상하는 맛이 살지 않을 것 같다. 이처럼 제목을 어떻게 붙이고 시각적인 배행 및 구조가 어떠한가에 따라 의미전달은 달라진다고 하겠다.

오인태 시인은 아래의 예시에서도 시각성을 높이고 있다. “뚝!”하고서 연을 바꾸어 동백꽃이 떨어지는 모습을 형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두 편의 예시는 자연물과 인간 내면의 비유적 거리의 지향하는 바에 따른 마음의 움직임은 느낌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예전의 서정적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면에서 말을 아끼고 있다.

RETRACTED

속절없이 서드드나 다발, 으쓱한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니,
언젠가는 오실 그대여 이만,

연구윤리 위반 및

뚝!

- 오인태, 「동백, 아름다운 절명」

연구부정행위 논문

사실은 대체로 자신이 목격대를 높이고 주장하며 부가적 증거를 원한다. 그만큼 타인으로부터 인상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이에 비하면 다음에 인용하는 함순례 시인은 낮은 데로 임하고 고정관념을 버린다. 선입견을 접으면 시상은 오히려 자유롭게 펼쳐진다. 기와는 높은 곳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다. 낮게 있으면서 공간적인 배경이 확대되고 시가 아우르는 범위가 확장되는 면에서 품이 커진다.

나의 기도가 저 높은
지붕 위나 담장에 올려져
고요히 피어오를 줄 알았더니

산사 뒤란 샘가에서
 물받이로 쓰이고 있네.
 세상에나, 조랑조랑
 맑은 물소리에 씻기며
 계곡으로, 마을로 낮게
 흘러가고 있네.

논문철회 합순례, 「기와불사」

땅만 보며 걷는다.

보도블록 틈서리에 피어 있는
 애기똥풀이 하나 주울까.

RETRACTED

어디론가 열 지어 기어가는

개미뽕지나 따라가 볼까
 쓸쓸히 물결치는 강가에서

오늘은 시종 떨어지지 않는

시린 그림자나 줍는다.

연구부정행위 논문 합순례, 「시를 줍자」

기와불사를 해 본 사람들은 소망할 것이다. “지붕 위나 담장에 올려져” 받들면서 있을 줄 안다. 그런데 시인의 시적 발견은 위로 향하지 않고 아래로 시선이 향한다. “물받이”로 쓰임새를 다하는 “기와”의 자세는 소박하고 정겹다. “물받이로 쓰이고 있네”와 “계곡으로, 마을로 낮게/ 흘러가고 있네” 등 문형의 반복을 통해 멈추거나 완결된 형태가 아니라 지속적 종결 형태를 지향하고 있다. 시가 끝나고 나서도 여운을 남겨 독자로 하여금 작품의 의미를 되새기며 음미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의미의 반복과 순환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시를 줍자」에서도 “애기똥풀

꽃이나 주울까”, “개미뽕지나 따라가 볼까”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시적 소재를 찾는 모습을 그린 “시를 줍자”는 끝부분의 “시린 그림자”를 읽다가 마음에 맏힌다. 이는 정서의 교감으로 인한 마음의 울림이라 하겠다.

아직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은 저녁, 집으로 가는 버스가 병원 앞을 지나
 니다. 커브의 담 위 담쟁이들 가득 수도 없이 연두색으로 돋았습니다. 그 앞
 처녀 둘 팡팡 걷습니다. 희끄무레한 병원 앞입니다.

논문철회 나기철, 「환한 날」

단형시는 나기철의 「환한 날」과 같이 신문기문도 사용된다. “병원”은 아픈 사람들이 많아 날빛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 앞 처녀 둘 팡팡 걷”고 “담쟁이들”, “연두색으로 돋”아 있으니 생기 가득하다. 그래서 제목처럼 “환한 날”이 되는 것이다.

연구윤리 위반 및

나기철 시인의 이는 어미들이 유기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우리가 아파서 “희끄무레한 병원”과 같을 때 “연두색”, “담쟁이”와 “팡팡 걷”는 “처녀”의 모습으로 기운을 북돋아 준다. 이처럼 나기철 시인의 시는 어려움 속에서도 생의 감격을 느끼게 하며, 시적 기쁨을 발휘한다. 우리에게 치료받아야 할 “병원” 같은 삶을 견디게 한다.

연구부정행위 논문

이어지는 「독립서점」에서 “나도 언젠간/ 문을 닫겠지”라는 표현에서 “닫는다”는 의미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운이 배가된다. “독립” 다음에 행갈이를 하고 “어려워”라고 표현한 형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휴지(休止) 만큼 감상의 여지를 낳은 면모이다.

폐업하는 서점 앞이다

나도 언젠간

문을 달겠지

독립

어려워

- 나기철, 「독립서점」

시를 쓸 때 “은유”적 수사는 주로 널리 쓰이는 표현법이다. “노인요양 병원”에 있는 많은 분들이 다음 크리스마스 “산레크싱”이다. 시인은 이 과정을 “직설화법”이라고 표현한다. 삭막해지는 분위기에 “꽃 핀 벗나무”를 엮는 센스가 있다. 만약 이 시에 “꽃 핀 벗나무”가 있는 구조라면 형상화는 또 달라져 두 가지로 조렸을 것이다.

논문철회
RETRACTED

노인요양병원 가로 앞 가로변
연구윤리 위반 및

그 직설화법이

해도 너무했다 싶었던지

연구부정행위 논문

그사이 두어 그루 꽃 핀 벗나무

- 복효근, 「은유법」

복효근의 다음 예시도 첫 연이자 첫 행은 이미지를 제시하며 다음에는 심상을 표현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 많은 말을 보태지 않아도 멋스럽고 감상하는 맛이 살아있다. “서로 부르며 들릴 만한 거리”를 날아가는 한 쌍이 떠오른다. 선경후정 양식의 특질을 보인다.

저무는 하늘을 백로 두 마리 날아간다

서로 부르며 들릴 만한 거리다

- 복효근, 「오래된 사랑」

이어서 역지사지로 다음의 시를 감상해 보자. 오성일의 시처럼 입장을 바꾸어서 상대를 헤아리면, 이해 못 할 것이 없고 상대의 말도 “다 맞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주관하다가 내 말도 못 하지 않으면 섭섭해하거나 다룬다. 화자인 “나”는 “비겁해서 못하는 것”인데 들이켜 보면 “맞다”. “나”와 “노숙의 차림”은 입장면에서 대조적인 구조를 이루지만 화자는 이를 수궁하게 된다.

논문철회
RETRACTED

노숙의 차림을 하고

술에 취한 사람이 내 말을
욕설의 말은
연구윤리 위반 및

다 맞다

연구부정행위 논문

인제나 생각한 많은 단
생전 비겁해서 못하는 말

지나치다 다시 서 가만히 들어보면

맞다

세상이 틀렸다

- 오성일, 「맞는 말」

다음으로 언어유희가 반짝이는 작품을 보자. 장황한 해설이 필요 없이

아래의 짧은 시는 직독직해가 된다. “카스”와 “키스”, “제철인 계절”과 “잊혀진 계절” 사이에 그리움이 묻어나온다. 오성일의 시편은 단어의 의미론에 포착한 다음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는 방식이다. 행 별로 의미가 구성되고 정반합의 시상 전개를 통해 마지막으로 주제의식이 모아진다.

‘키스가 제철인 계절’이라는 광고카피에
눈이 반-짝 뜨였다가
다시 보니 ‘카스가 제철인 키스’

논문철회

하하, 지금은 잊어진 계절이지만
나 한때 일었다고 그 김술 끝 그림자 기쁨과
키스가 제철인 계절

RETRACTED

연구윤리 위반 및

윤호 시인의 “참나무” 연작에는 헌신이 빛난다.

연구부정행위 논문

막에 갇히는 산장에서 하얀 진물이 흘러 나오기 이번에는 풍뎡이와 왕
탱이, 사슴벌레를 서둘러 불러 모으고 있었다.

- 윤호, 「참나무 1」

허방 아래로 나뭇그라진 상수리가 어질머리를 수습하고 겨울날 자리를
잡을 때까지 가랑잎들이 뒤척이며 길을 내주고 있었다.

- 윤호, 「참나무 2」

상처를 받았으면서도 “풍뎡이며 왕탱이, 사슴벌레”를 먹이며 사는 모습은 처절하다. 윤호 시인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장면을 포착해 간결하

면서 상징적인 표현을 한다. “상수리가 어질머리를 수습하”기 위해 “가랑잎”들이 “길을 내주고” 도와주고 있다. 이런 표현들에서 독자는 아! 하며 감탄을 하게 된다. 사람들의 무심한 의식에 각성제가 되고 여운을 남긴다. 단순하고 짧은 진솔로 이루어져 있으나, 이 시 안에는 대상의 비밀에 대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매혹과 경탄이 깃들여 있다. 희생의 풍경에 대한 경외감은 말의 수다스러움으로 담아낼 수 없기에 시인은 말과 호흡을 극도로 축약하였으며, 한 문장, 두 문장, 한 구절의 시를 이루었다. 현대시는 운문이나 산문 형태 둘 다 쓸 수 있다. 행과 여운을 따지지 않아도 “진물이 흘러 나오자”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처럼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물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고 그 후에 화자의 정서가 표출되고 있다.

논문철회

힘을 빼야 멀리, 오래 간다

연구윤리 위반 및

피카도, 그렇고 마르톤, 그렇다
하늘과 헤르니 에튀

손목과 팔뚝과 어깨 힘을 빼야 한다

연구부정행위 논문

우아한 무관심, 스프레차투라(sprezzatura)

이러한 언어들은 어떤가 사용하고 연구자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힘을 빼면 힘을 넣어야 할 부분이 보인다

시도 그렇다

- 이지엽, 「힘을 뺀다는 것 1」

눈 덮인 겨울날 장독대에 장독들을 보아라

저 평화롭고 고즈넉한 자세

힘을 뺀다는 것은 저런 것이다

안에서는 맛을 들기 위해 끊고 뜨겁게 뒤섞이지만
겉은 저렇듯 여유로운 것이다

- 이지엽, 「힘을 빼다는 것 2」

이지엽의 연작에서도 “힘을 빼다는”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게 된다. 억지로 힘을 쓸 때는 불편하고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 “피아노”, “마라톤” 뿐만 아니라 시를 쓸 때도 힘을 빼야 한다는 교감을 주고 있다.

“눈 덮인 겨울 날”의 “강독대”는 겨울을 지내야 하는 뜨겁다. 왜냐하면 장이 익으려고 “끓고 뒤섞이”기 때문이다. 사람도 저처럼 힘을 빼고 지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교감하는 모습, 그와 버려 둔 자연과 교감하는 모습, 장이 익어가는 모습을 연상하게 된다.

이처럼 단형시는 형식적인 간결성이 주된 특징이고 연작시를 쓰기도 원형의 호흡이 걸지 않아서 정수만 도달하면 완성에 도달하는 장점이 있다. 객관적 상관들을 새롭게 인식하며 개인의 욕망까지도 담아낼 수 있는 방식이다. 내용이 짧다고 해서 해석의 폭이 작은 것은 아니며 절제미와 함축미를 보여준다.

여기까지 <채송화> 동인의 작품을 예시로 단형시의 각각 구곡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채송화>는 큰 목소리와 거침없는 행보를 한다기보다는 낮은 목소리로 우리 곁의 일상 속에 자상하고 세밀하게 다가온다. 시 속에는 친구 같고 이웃 같은 따뜻한 정감이 녹아있다. 단형이라고 했을 때는 ‘극소’의 의미가 있지만 ‘극도’의 집중성과 응축성이 있으며 언어의 경제성과 사유의 응집성을 결속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단형시의 여백이 불러오는 풍경들은 다 말하지 않아도, 강렬한 힘이 있다. 힘을 빼면서 동력을 얻는 따뜻한 시선이 있다. <채송화>의 시를 떠올리면 군더더기를 발라내고 빼만 남은 핵심이 느껴진다. 이를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단출한 집의 형식에 가득 찬 알곡처럼 단형의 형식 속에

깊은 사유를 담아낸 것이다. 또 경구처럼 독자의 허를 찌르기도 하고, 정제되고 함축된 언어로 진실을 말한다. 현실의 억압구조 안에서 방황하는 자아와 대립의 극복은 나아가 조화로 향한다. 절제된 언어는 본질을 꿰뚫어 보는 힘이 있다. 단형시는 할 말이 없어서 짧아진 시가 아니라 절제된 형식 속에 응축된 언어로 많은 이야기를 한다.

논문철회

5. 결론

21세기 한국문학은 첨단 디지털 기술이 보편화되고 생활은 편해졌지만 그 양상은 복잡다단하다. 급변하는 세태일수록 많은 의식과 정체성이 필요하다. 한국시의 본령을 찾다보니 본고는 뿌리로 거슬러 올라가 우리 고유의 문예유산인 향가(鄕歌)를 만나게 되고 문고정신의 의미를 살피게 되었다. 향가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작품을 구출하며 각자가 아닌 지혜의 방식으로 풀어낸다는 생각이 든다. 외부가 아닌 내면을 보면서 인간다움을 찾고 있다. 또 시와 시조의 형식과 관계성을 보건대, 장르 간에 소통이 되는 점을 지향점으로 삼고 싶은 것이다. 한 번 더 깊게 유지되어온 정형적인 시조도 향가의 영향을 받았으며 오늘날 외형에 융통성을 주며 유지되고 있다.

한 행에 오는 음보 수에서 자유로움을 추구하되, 행의 수에 따라 일정한 형식을 취하고 있고 이를 현대시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대개 한 두 행 가량을 의미전달의 용이성에 따라 가감하면서 배열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가의 형식에서 동떨어진 것이 아니며, 정서적인 교감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문학은 전통을 계승한다. 하지만 단순 답습이 아니고 창조적으로 재현해야 한다. 그래야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바로 이 부분이 현대시가 지닌 과제이며 함께 풀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향가의 4구체, 8구체, 10구체에 따른 미적 구조는 주제를 부각하기 위한 방법론이며 주제의 특징을 분석해 봄으로써 짧은 현대시의 형식미를 통한 향가 정신을 충분히 계승할 수 있다. 그래서 고전의 현대화 내지 현대의 과도한 복잡성과 불확정성을 짚어보게 한다. 현대시 중에서 향가적 특질 예컨대 2행 6음보나 3단 구성, 3단의 시상 전개를 찾아보면 여러 작품이 상통할 것이다. <작은詩앗·채송화>를 중심으로 단형시의 구조에 있어 미학과 의미를 관찰한 결과 단형시는 새벽이 불러오는 풍경이 있고, 낮은 목소리로 삶을 바라보는 시적이 있고, 자연과 교감하는 서정성이 있다. 향가의 특질과 견주어봄으로써 오랜 세월 면면히 이어져 온 한국적 서정성의 생명력을 깨닫는 까닭이 된다. 향가는 천여년 전에 사라져 버린 중세 문학 양식이지만 정신은 오늘날에도 살아 있는 고전으로 향유될 수 있다. 한국 서정시 역사의 기저에 흐르는 서정의 맥이 향가에서 <작은詩앗·채송화>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대성을 반영하며 시단의 지는 빠르게 변화해 가고 있다. 난해한 산문이나 해체시는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단형시는 울림을 주며 호흡이 길지 않게 정수만 전달되도록 감성에 호소한다. 언어와 의미의 과잉이 아닌 짧은 행이 주는 시각적·기미의 참축미를 고어주목 연작시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다. 또 독자로 하여금 주제의식을 용이하게 전달한다. 단형시는 할 말이 없어서 짧아진 시가 아니라 절제된 형식 속에 응축된 언어로 표현한다. 향후 우리 시단에서 산문이나 난해시 등 길고 소통이 어려운 시를 쓰는 미래파 시인과 그 에피고넨들이 시세계를 점검하는 단초가 되고 서정시의 본향에 귀를 기울이기를 기대한다.

[ABSTRACT]

A Study of Inheritance of the Hyangga Spirit and
the Formal Beauty of Short Poems

- On the Center of <small seeds · portulaca grandiflora>

논문철회
Park Mye-suk (SungMyung University)

This paper seeks the source of modern poetry in Hyangga based on the understanding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Hyangga style. Hyangga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medieval lyric poetry such as Goryeo Song and Sijo, and also influences modern poetry. The essence of poetry lies in lyricism, and here is a coterie springing poetic sense of <small seeds · portulaca grandiflor> that tries to prove it. The coterie of portulaca grandiflora was formed in 2007 as a consciousness about another person on the difficulties of the 'futurism' trend. Through poetics and works, we can see the pursuit of 'short poetry', and 'short poetry' not only restores the poetic task of the era of rejection and overcoming 'long poetry' and but also manifests 'lyricism' as the proper function of poetry. Although it is pursuing of freedom from the number of notes in a line, but the number of lines is less than 10 lines and the coterie of portulaca grandiflora takes the form of a short poem. Usually, it is possible to arrange one or two rows by adding or subtracting them according to the ease of conveying the meaning, so it is not separated from the form of Hyangga and the emotional sympathy is more important. The aesthetic structure according to four sentences, eight sentences and ten sentences

of Hyangga is a methodology to emphasize the theme and it is able to fully inherit the Hyangga's spirit with the formal beauty of <portulaca grandiflora> coterie. For example, if you look for the structure of two lines, six notes or three stages and the poetical sentiment development of three stages, several works are in common.

As a result of examining aesthetics and meaning in the structure of short poems, there is a compressed vitality, landscapes with blank spaces, and lyrical sympathy with nature. By comparing the characteristics of Hyangga, we can feel the vitality of Korean lyricism that has been around for many years. The Hyangga is a medieval literary style that disappeared over a thousand years ago, but its spirit can be enjoyed as a living classic today.

연구윤리 위반 및
Key word: Hyangga spirit, the source of modern poetry, short poem, small seeds · portulaca grandiflora coterie, formal beauty, lyricism, blank spaces

연구부정행위 논문

논문철회

RETRACTED

논문철회

RETRACTED

[참고문헌]

□ 기본자료

작은詩앗·채송화, 『내 안에 움튼 연못빛』(동인지 창간호), 2008. 3.
 작은詩앗·채송화, 『하늘 우물』(동인지 3호), 고요아침, 2008. 12.
 작은詩앗·채송화, 『옛날 애인이 찾아왔다』(동인지 8호), 고요아침, 2011. 6.
 작은詩앗·채송화, 『울음의 본적』(동인지 9호), 고요아침, 2012. 7.
 작은詩앗·채송화, 『빈틈엔 꽃』(동인지 17호), 고요아침, 2017. 5.
 작은詩앗·채송화, 『올리』(동인지 18호), 고요아침, 2018. 6.
 작은詩앗·채송화, 『맞는 말』(동인지 21호), 고요아침, 2019. 6.

□ 단행본

고영섭 외, 『노래 흥의 나라』(현대향가 제1집) 연가사, 2018. 5.
 김병국, 「시조 발생의 문학사적 의의」, 『고려 시대의 가요문학』, 새문사, 1982.
 김준오, 『시론』(제4판), 삼지원, 1997.
 신재홍, 『향가의 미학』, 집문당, 2000.
 조동일, 『한국시가의 역사적 의미』, 집문당, 1993.
 조병기, 『한국문학의 서정성 연구』, 대왕사, 1993.
 최철, 『향가의 문학적 해석』, 연세대 출판부, 1990.

□ 논문 및 기타 자료

김종진, 「균여가 가리키는 달 - 보현십원가의 비평적 해석」, 『정토학연구』19, 2013, 112-119면.
 신재홍, 「10행 향가와 <님의 침묵>, <서시>의 비교 고찰」, 『한국시가문화연구』 제39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17. 188면-214면.
 엄국현, 「향가의 개념과 한국시의 구조」, 『신라학연구』3, 위덕대 신라학연구소, 1999, 350-377면.
 홍성식, 「생활문학으로서의 농민시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36집, 한국현대 문예비평학회, 2011, 285-294면

접수일 : 2019. 11. 21 총평일 : 2019. 12. 17 게재확정일 : 2019. 12. 29